

‘심재철 공방’ 국회로 번지나

오늘부터 4일까지 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평양공동선언·부동산 정책도 ‘불꽃’

이번주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야 간 정면 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비롯,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와 경제정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을 대정부질문자로 내세워, 확보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대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 반면, 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 및 공개를 ‘법·국기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며 반격을 가할 것이 확실시 된다.

또한 민주당은 최근 남북·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경제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알리겠지만,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대북 역지력이 약화됐고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공격할 방침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우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문제가 단연 최대 쟁점이다. 지난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4선의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심재철·이인영·박주민·민홍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4선의 유기준 의원과 함께 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질의한다.

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한반도 평화 흐름을 집중 조명할 방침이다. 4·27 판문점선

언 국회 비준동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을 염두에 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주장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에 위한 군사분야 협의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무장해제’라고 깎아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심 의원과 기획재

정부가 상호 고발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면하는 모습이 연출될 전망이다. 여기에 각종 경제지표 악화, 서울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논란 등 쟁점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두·이학영·윤관석·이기우·김정우 의원 등 주요 상임위 여당 간 사들이 출격할 데 맞서 한국당은 심재철·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 의원이 나선다. 바른미래당 김성식·이인주, 민주당 당 윤영일 의원도 질의한다. 심 의원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대정부질문의 장을 활용해 모종의 추가 ‘폭로’를 할지가 최대 관

심사이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소재로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고용문제, 대입 정책 혼선 등이 꼽힌다. 심 의원의 행정정보 취득 문제와 검찰의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이 질의하고, 한국당에서는 주광덕·이철규·박성중·성일중·임이자 의원이 출격한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질의자로 선정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국회 정문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가 북측에서 선물로 받은 풍산개 수컷 ‘송강’(왼쪽)이와 암컷 ‘곰이’

김정은, 문대통령에 풍산개 한쌍 선물

수컷 ‘송강’ 암컷 ‘곰이’

청와대는 지난 달 30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풍산개 한 쌍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지난 달 18~20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시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암수 한 쌍을 선물로 받았다”며 “동물검역 절차를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지난 달 27일에 인수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풍산개와 함께 개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먹이 3kg도 보내 왔다.

풍산개 선물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일정 첫날인 18일 목란관에서 개최된 환영만찬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에게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여주며 선물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북측이 선물한 한 쌍 중 수컷의 이름은 ‘송강’으로, 지난해 11월 20일 풍산군에서 출생했다. 암컷의 이름은 ‘곰이’로 지난해 3월 12일 풍산군에서 출생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때도 풍산개 한 쌍을 선물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유은혜 임명 수순 밝나

청문보고서 오늘까지 재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장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한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월 28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10월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1차 기한은 지난달 23일이었지만, 추석 연휴가 있어 서 휴일이 끝난 뒤 첫 평일이던 지난 달 27일일까지 늦춰졌던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보고서를 다시 요청한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채택 가능성은 희박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시작 전부터 난기류... 기재위 빠진 국감되나

심재철 기재위 사퇴 여부 변수... 국감 일정 확정 못해

여야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대치 전선을 이어가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시작 전부터 난기류를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이는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고발에 맞고바로 대응한 심 의원이 기재위에 서 기재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심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아닌 기재부의 심 의원 고발은 정권 차원의 ‘야당 죽이기’라고 보고 사실상 대정부 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는 이번주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국감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치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부분 파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심재철 사태’로 기재위만 국감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면서 올해 국감은 기재위를

제외한 채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기재위 국감 개최 전제조건으로 내놓은 심 의원의 기재위 사퇴를 현재로서는 한국당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0일 “심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 일정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심 의원 문제로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를 못 본다면 다른 상임위만이라도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심 의원이 입수한 정보는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국감 자료’라고 주장, 이를 토대로 대정부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당내에서는 기재위 국감일정을 미뤄서라도 ‘심재철 사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당 이상수 대변인은 “심 의원의 기재위를 그만둘 정당한 이유가 없다. 민주당의 사보인 주장은 억지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기재위 국감일정을 안 잡는다면 파행의 책임은 여당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취임 한 달 손학규, 당 안정 ‘성과’ 통합은 ‘아직’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는 2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손 대표는 그동안 중랑구 있는 리더십으로 지방선거 참패 이후 존립이 위태로웠던 당을 어느 정도 안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전당대회에서 옛 국민의당 출신 당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당권을 거머쥔 손 대표는 취임 이후 첫 당직 인선에서 바른미래당 출신인 오신환 의원을 사무총장, 국민의당 출신인 채이배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며 당의 화합을 도모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조직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 이후

공석인 지역위원장 공개모집에서 ‘해당 지역구 인구 0.1% 이상의 책임당원을 모집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내세운 데 대해서도 당 쇄신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옛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의 화학적 결합,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슈 등 굵직한 정책의제에 대한 당의 분명한 태도 설정 같은 당의 정체성 정립은 손 대표에게 여전히 남겨진 숙제다. 이에 맞물려 당보상태를 보려는 당 지지율도 손 대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900만원
- 전북 순창군 북동면 지선리 대지 433㎡ 3천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시입구 1868㎡ 찻집등적합 1억3천

주택·원룸·아파트

- 금매 경기 수원시 장안구 45평형아파트 분양 5억9천 매도 4억9천
- 울산동 능성초 건너편 소방도입 대지 149㎡ 2층주택 115㎡ 1억3천
- 서구 쌍촌동 2층 주택 105㎡ 새 주택 118㎡ 운전저수지부근 2억7천
- 광산구 송산동 땅 1054㎡ 집 100㎡ 전원생활적합 3억2천
- 아파트 서구 능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완료 1억7천

투자·매도·교환

- 울산동 양면도로접 주거지 873㎡ 창고와 사무실 11억
- 무안 해제면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신고 3억5천 매도 3억
- 영광 흥농을 주거지 5223㎡ 공시지가 6700 매도 8500
- 나주시 동수동 자연녹지 12076㎡ 교통 좋은 14억7300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 다세대·빌라·사할 등 적합 10억 천
- 충장로5가 버스도입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7천
- 유동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 금남로 57억 대로접 상업지 364㎡ 16억

상가건물

- 산수동 소방도 코너 3층 상가주택 땅 96㎡ 건물 55㎡ 2억
- 쌍촌동 원룸, 투룸 15실과 안집(주인거주) 월세 460, 12억5천
- 용봉동 고시텔 땅 357㎡ 건물 829㎡ 45실 은행5억 교환가 10억
- 고흥 나로도인근 팬션 땅 6891㎡ 건평 267㎡ 객실10, 은행3억, 7억5천
- 여관 목포시 옥암동 땅 439㎡ 건물 989㎡ 객실26 은행 4억 매도 7천만
- 북동 토지 538㎡ 건물 1933㎡ 은행 9억2천 매도 1억 6천
- 능성초부근 2차전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순천만 대대동 팬션 땅 332㎡ 객실8, 관리실, 은행3억 영일적합 3억천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능성초교옆문앞

광산구 공고 제2018-1127호

무연분묘 개장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인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2. 공고인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송정동)
3. 분묘의 위치(장소)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분 묘	개 장 사 유
광산구 비아동	35-6	전	5기	송정점탄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전장소 및 기간 : 관내 공설공원 묘지
7. 신고 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송정동)
 - 광산구청 생활체육지원단 (☎ 062-960-8723)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 공사부지 내에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동 공고로 같음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광 산 구 청 장